해남군 땅끝마을 송호해수욕장 내달 14일 개장

입수 가능 시간 오전 9시~오후 7시
내달말에는 송호해변 여름축제 개최

해남군은 다음달 14일 송호해수욕장을 개장한다. 개장기간은 8월 20일까지 38일간, 입수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군은 개장 전까지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편의시설 확충, 물놀이 가능구역 지정, 안전시설 설치 등 피서객 맞이를 위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7월 말에는 해변콘서트와 문화공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송호해변 여름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땅끝마을과 인접한 송호해수욕장은 해남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해변가의 수백년된 노송림과 호수와 같은 잔잔한 물결이 아름다운 곳이다.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아 가족들이 함께하기 좋으며 해송이 제방을 따라 이어져 있어 야영을 하기에도 적합하다.

한편 올해 사구미 해수욕장은 정식 개장하지 않고 주요 시설물 정비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9일 2023년 해남군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확정하고, 시설물 확충 등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무더운 여름 날씨가 예보되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송호해수욕장이 여름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윤보현 기자

해남군은 다음달 14일 송호해수욕장을 개장한다. 개장기간은 8월 20일까지 38일간, 입수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7월 말에는 해변콘서트와 문화공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송호해변 여름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해남군 제공

진도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전 마을 완료

진도군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전 마을에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농어촌 지역 고령화와 기존 마을방송 방식의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개선하는 사업이다.

마을 이장이 휴대전화기와 유선전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민들에게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과 전화를 통해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특히 진도읍 시가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군민들은 마을방송 청취가 곤란했지만 스마트폰으로 바로 청취할 수 있고, 녹음된 방송을 다시 들을 수도 있어 방송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 스마트폰이 없는 군민은 스마트마을방송 등록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등록하면 휴대폰 또는 집 전화로도 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이재평 기자

고흥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법무부에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한 결과, 올해 고흥군은 1천98명(어업 701명, 농업 397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배정받은 471명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인원이다.

고흥군에는 현재 상반기 배정인원 311명 중 사증 발급 및 의료검사를 통과한 200여명이 농·어가에 배치됐으며, 추가 근로자 선발과 고용주 숙소 점검 등 도입 준비가 완료되는 7월부터 하반기 계절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입국해 일손이 필요한 농어가에 배치된다.

앞서 고흥군은 지난 3월 대규모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필리핀 내 3개 지자체와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전체 5개 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및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고용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년도 계절근로자의 성공적인 유치에 따른 우수지자체 로 선정돼 고용주당 고용 한도가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2명 증가했으며, 관련지침 개정으로 해조류양식업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으로 일손 부족문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고용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최종민 기자

보성, 2023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보성군은 오는 12월 29일까지 '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14만9천800원(1인)부터 37만9천600원(4인 이상)까지 지원된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지원 대상자 중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올해 자동 신청되며,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신규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강종수 기자

완도군, '전남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올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하반기 프로그램(귀어형)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기존의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다르게 전문 기술 전수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완도군에서는 7월부터 11월까지 완도군 약산면의 어두리마을(약산면 약산로1020)에서 주낙 꾸미기, 새우·광어·전복 양식 기술 전수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 자격으로는 만 18~55세 미만의 타지역 거주자 또는 전남으로 귀어·귀촌한 지 5년 이내인 자(귀어·귀촌 교육 10시간 이상 사전 수료)로 농수산물 판로 확대, 창업, 취업 등을 위해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전남에서 살아보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서류심사 및 전화 면접을 통해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

참가자에게는 거주 공간, 귀어·귀촌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체류기간별 귀어·귀촌 교육 시간은 최대 90시간까지 인정한다.

/박나영 기자

장흥 안양면 청년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장흥군 안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윤양현, 김성식)는 지난 12일 안양면 청년회에서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안양면청년회(회장 임대곤)는 지난 수년 동안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안양면청년회는 이번 기탁을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과 참여를 위한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와 지역매체를 통해 기탁 사업의 목적과 결과를 널리 알리고,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윤양현 안양면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눔문화 확산의 마중물이 돼주신 안양면 청년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두연 기자